

## 김정일 와병설 이후 대북정책 방향

### 박 종 철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정일위원장의 와병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혼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내부동향이나 대남동향에서 아직까지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북한과 같이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과 신변이상이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위원장의 신변 이상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되짚어보게 한다. 우선 북한지도층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권력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식량난이 증가되고 사회적 질서가 와해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뒤따르고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구조의 변화가 안정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이고 파국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안개정국은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의 향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다.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했을 때 국제사회가 핵문제의 향방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정일위원장의 와병 전후 핵불능화 조치의 중단과 일본인 납치문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등 대외문제에 있어서 강경노선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강경노선이 김정일위원장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와병 과정에서 제 3자의 결정이었는지에 따라 향후 핵문제의 전개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는 우리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남북한은 여러 가지 고리를 통해 얽혀졌으며 국제사회도 남북한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한 묶음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와 국제적 위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용도와 안보상의 위기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김정일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한 진상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겠지만, 그 진상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대북정책에서 북한변수를 중요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체나 변화방향과는 무관하게 이론적 정교함, 논리성, 대내외적 설득력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북한의 다양한 변화경로라는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안을 탄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활주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제탑에서 국제적 요인과 북한요인, 국내적 요인을 종합하고, 외통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간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렛대를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형태와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정부의 직접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등의 절차와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북한과의 접촉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하고 치밀한 접근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민간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접촉 통로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의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조각정보를 모아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한다. 다양화된 접촉 통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양적 증가 및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협력사업의 전략적 목표와 효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각 사업간 연계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경협 사업 및 경협단지의 선정,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변화 방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정일위원장의 와병설은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가 지니고 있는 무게와 복잡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는 햇볕론과 강풍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그랜드 디자인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